

영어 이야기

김성진 /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장

연수 과정은 나에게 하루하루 생활이 영어로 시작했고 영어로 생각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무척 컸다. 전공에 관계되는 강의는 공부에 지장이 없었으나 각 나라의 방언식 영어는 알아듣는데 2개월이 지나야 됐다. 강사는 일본인, 미국인, 태국인, 캐나다인, 이태리인, 한국의 후원장님이었는데 일본인 강사들의 강의가 제일 쉬웠다. 내용의 난이도보다는 외국어인 영어 수준 차이였다. 유창하지 못하고 내용의 직접적인 설명과 우리와 비슷한 영어발음때문에 일본식영어 가 쉽게 이해됐다. 한국, 일본, 중국인 의사의 영어는 다른나라 사람들의 영어보다 발음이 명료한 특성이 있었고, 연음의 미국식영어 보다는 영국식영어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몽골리안 계통인 몽고의사의 영어는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매우 독특한 강세의 영어를 썼다. 우리로 말한다면 경상도 사투리랄까. 각자의 언어가 있지만은 정부의 공용어가 영어인 나라는 가나, 인도, 말레위, 탄자니아, 필리핀, 솔로몬제도가 있었고, 국민학교때

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방글라데시, 홍콩이 있었다. 식민지였던 관계로 스페인어가 공용어인 나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 니카라과 등이 있었고 이들의 영어는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인 모잠비크와 비슷한 영어 발음체계를 보였다. 독특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의 비슷한 억양의 영어는 다른 지역권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초기에는 나는 누구누구의 말 몇%를 이해한다라고 하며 서로의 이해도를 비교하곤 했었다.

한 온두라스의사는 아프리카영어의 억양을 이해하는데 힘겨워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표준영어를 구사하는 연수자는 아버지가 전직 유럽주재 외교관으로 어린시절부터 외국에서 학교공부를 했던 네팔의사였다. 의과대학도 인도에서 마치고 대학원은 태국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과정말기에는 영어에 곤란을 겪었던 그룹의 실력이 부쩍 늘어서 아주 유창한 그룹과 중간그룹으로 재편성되었다.

서로의 고유한 억양에 익숙해졌고 개인의 노력으로 모두 큰 어려움없이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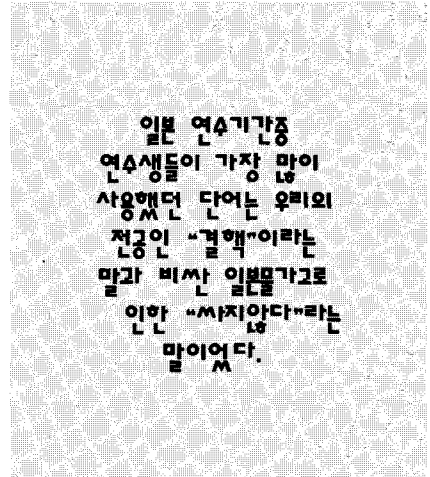
어로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연수기간중 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우리의 전공인 “결핵”이라는 말과 비싼 일본물가고로 인한 “싸지않다”라는 말이었다. 수업 종료후 숙소나 식당에서는 스페인어, 방글라데시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네팔어, 인도어, 필리핀어등 각 지역의 시끌썩한 언어 무대로 혼자였던 나는 이해하기 위해 더욱 신경이 곤두서야했고 첫 주에 아끼야바라 전자상가에서 단파라디오를 구입하여 우리방송을 청취하며 초기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많은 연수참가 의사들이 영어외에도 다른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것을 보고 앞으로 21세기의 밝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나라의 언어인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초기에 너무나 영어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기에 열중하다가 4주째 우리말로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한단어를 반대말로 말해버리는 웃지못할 언어혼란을 겪었다.

연수기간 중에 일본인회사를 다니고 일본인 부인을 맞이하여 일본 시민권이 있는 나와 동갑내기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대학까지 한국에서 마쳤고 매년 한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도 나와 처음 이야기를 나눌때 우리말을 하고 듣는데 익숙하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다. 우리말을 잊고 외국에서 오래 살 경우 우리말 억양이나 단어를 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토요일 수업이 없는 관계로 주말은 데



핑이 붙지 않는한 숙소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바쁘게 지냈다.

한번은 동경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배낭 여행자들과 만났는데 함께 이야기하며 내린 결론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번은 둘러보며 생각해 볼 필요있는 좋은 교육장 소라는 것이다. 동경 황궁에서 만났던 한 멋진 그룹의 대학생 여행자들은 식사는 직접 버너로 해결하며 잠은 역사에서 노숙으로 해결하여 일본의 높은 물가고를 이기며 페리호와 신간선을 타고 동경에 도착, 상품구입이나 즐기는 관광이 아닌 진정한 새로운 경험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에노로 동경대학을 찾아 떠나는 그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나와 함께 있었던 네 팔의사에게 자랑했었다. ㅈ